

엇갈린 소득…농가 울고 어가 웃었다

지난해 농가소득 5059만7000원…한우가격 하락에 축산 부진 영향
어가소득 6365만2000원 전년비 16%↑…김양식 호황에 역대 최대

지난해 어가소득은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소득은 국내·외 김 양식 판매량이 30% 이상 오르면서 상승을 견인했고, 농가소득은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 여파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59만7000원으로 전년(5082만8000원) 대비 0.5% 감소했다.

농가소득은 2023년 전년 대비 10.1% 증가한 5082만8000원으로, 역대 최초로 5000만원 선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가소득 감소에는 농업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농업외소득(0.7%), 이전소득(6.1%), 비경상소득(5.5%)은 증가했으나, 농업소득(-14.1%)은 대폭 줄었다.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값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5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농업총수입은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수입(-11.2%)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8% 감소한 3684만9000원을 기록했다. 농업경영비는 노무비(9.6%)와 경비(3.3%) 등 비용이 오르면서 1.8% 증가한 2727만3000원이었다. 농업소득률도 26.0%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어가소득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6300만원 선을 돌파했다. 김 양식 호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어가 연평균 소득은 6365만2000원으로, 전년(5477만9000원)과 비교해 16.2% 급증했다.

어가소득에서는 세부 항목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어업소득은 278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2%나 올랐고, 어업총수입(11.9%)과 어업경

영비(5.0%)도 증가했다.

어업소득률 역시 31.8%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업소득률은 2020년 29.8%, 2021년 25.5%, 2022년 24.9%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2023년 27.3%, 2024년 31.8% 등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다. 어업외소득도 5.0% 올라 1536만2000원을 기록했다.

어가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8.3%), 사적보조금(18.3%)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전년보다 8.5% 증가한 1756만6000원을 기록했으며, 비경상소득은 283만9000원으로 11.6%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어업 생산액은 김 양식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인 10조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농·어가의 대출 증가세가 우려를 키운다. 정부가 농·어가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의 한도를 상향한 것이 대출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가 평균부채는 450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8.3% 늘었고, 어가 평균부채는 6.5% 증가한 708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제주산 마늘 첫 수매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농협 유통센터에서 올해산 마늘 첫 수매를 시작한 가운데 농민들이 1t 트럭으로 실어 온 마늘을 화물차로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1마리 팔 때마다 161만원 손해…한우 농가 3년째 적자

사육값 하락에 판매가격 폭락 커
젓소·돼지·닭 등 수익성은 개선

지난해 한우 사육값은 하락했지만, 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한우 농가들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1마리 당 수익성은 161만4000원 순손실로 전년 대비 18만8000원(13.2%) 증가했다. 비육우는 한우 농가들이 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로, 육우보다 생산비가 더 든다는 점을 감안해도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우 비육우 1마리 당 수익성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비육우는 1마리 당

지난 2021년 29만2000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2년 68만9000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이후 사육값,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손실폭을 늘려 2023년 142만6000원 순손실, 2024년 161만4000원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비육우 수익성이 더욱 악화된 것은 생산비보다는 판매가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1~2023년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산비 급등의 영향이 컸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한우 생산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지난해 기준 12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4000원(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우 비육우 경락가격은 1만7963원으로 1년전보다 3.5% 하락했다.

한우 육우의 경우 적자폭을 좁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육우 1마리 당 수익성은 180만8000원 순손실로 전년에 견줘 21만2000원(10.5%) 손실폭을 줄였다. 이는 송아지 산지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했지만, 경락가격도 오르면서 손실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 밖에 젓소, 돼지, 닭 등 다른 축산물들의 수익성은 개선됐다.

젓소 1마리 당 수익성은 전년 대비 24.3% 증가한 215만원 순수익을 기록했다.

돼지는 비육돈 농가가 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사료비가 줄어 1마리 당 3만2000원 순수익을 올렸다.

산란계는 산지가격이 올라 1마리 당 66.5% 증가한 8042원의 순수익을 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옥수수의 변신은 무죄

찰옥수수 유행하다 사료용 전락…중요한 건 식량 안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곡물이 옥수수라는 것을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 세계인의 주식인 밀이나 쌀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옥수수보다는 생산량이 적다고 한다. 끼니 사이에 간식으로 주로 먹고 영화관에서 즐기는 팝콘의 주재료로 정도로 생각하기엔 서운한 면이 있다. 사람도 살기 힘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곡물이라는 점이 그 명성을 날렸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 세계의 사람이나 가축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작물임에 틀림없다.

옥수수에 대해 알려면 그 모태인 수수를 이해하는 게 먼저다. ‘옥 같은 수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장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수류만도 3종이다. 모두 벼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씨앗이나 모종으로 심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옥수수와 수수를 구별할 수 없는 하지만 주로 열매를 식용하는 반면, 사탕수수는 줄기를 으깨어 사탕즙을 만들어 흑설탕이나 이를 정제한 백설탕을 만드는데 이용한다는 점도 구별된다.

붉은 수수대의 유래를 다룬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에도 나오는 수수는 벼과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전역에 걸쳐서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데, 발효시켜 고량주를 만들기도 한다. 식량으로서 품질은 보라·조에 비해 떨어지지만, 옥수수처럼 메마른 땅이나 습한 땅에도 잘 된다. 특히 콩밭의 콩 포기 사이에 섞어 심어 가꾸기도 하는 ‘알뜰한’ 작물이다.

옥수수의 고향도 수수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이다. 북부 안데스 또는 멕시코 일대를 그 원

산지라 추정하는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 덕분에 세계 곳곳에 급속히 확산할 수 있었다. 아메리카에서 들어왔지만, 아시아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일찌감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축산업과 가공산업의 발달과 함께 옥수수의 알곡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도 증가했다. 하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식량으로 쓰이는 메옥수수와 달리 간식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단옥수수는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도입돼 퍼졌다. 1970년대까지 끼니가 되는 메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옥수수 농사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 달고 차진 찰옥수수가 주를 이뤘다.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찰옥수수 품종이 개발·보급되면서 재배 면적이 감소하기 했지만, 텃밭 등에 재배하는 면적이 증가하면서 수요량 일부를 조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이제는 옥수수라 하면 간식용이나 식량용으로 쓰이는 단옥수수, 찰옥수수, 팝콘, 꼬마옥수수 등 식용 옥수수보다는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사료용 옥수수와 식용유와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산업용 옥수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 2023년부터 전락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재배하는 사료용 옥수수만도 2023년 기준 1만6000ha에 이른다.

농작물은 쓰임새와 수요에 따라 재배면적과 종자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식량용으로 주로 쓰이다가 간식용으로 전락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고, 다시 사료용 산업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을 늘리고 있는 옥수수의 천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또 이 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 증가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소한 작물이랄지 할지라도 나라의 안위를 위해 할 수 있다는 식량 작물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bigkim@kwangju.co.kr

배추·청양고추…‘양동시장’ 농산물 가격 하락세

광주시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서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정보지 2510호’에 따르면 양동시장에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배추’다. 배추(1포기) 판매가는 지난 26일 기준 3330원으로 전년 동

기(5500원)보다 39.5% 하락했다.

이어 청양고추가 100g 당 650원으로 1년전(1050원) 대비 38.1% 저렴했고, 상추(-25.0%), 호박(-22.8%), 대파(-21.6%), 참외(-18.9%) 등의 하락폭이 컸다.

간마늘 등은 재고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aT는 햇마늘 출하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